

나주시, 교육발전특구 지정 '명품교육도시' 조성 탄력

4대 전략·17개 세부사업...2028년까지 추진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고교학점제 등 운영

나주시가 지방 교육 혁신을 선도할 정부 정책사업인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서 명품 교육도시 조성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3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성공하며 지역 발전을 견인할 민선 8기 10대 역점사업 첫 포문을 열었다. 교육발전특구는 유아에서부터 초·중·고교, 대학까지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지역 대학, 기업·공공기관 등이 협력·지원하는 체계다.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 혁신을 통해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도 학생,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둔다. 시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 발표 이전인 지난해 12월부터 '빛가람 혁신도시 중심의 나주시 교육

발전특구 지정 연구 용역'을 추진하며 기반의 준비를 해왔다. 올해 들어 행정기관, 대학, 공공기관, 고등학교, 기업협회 등 16개 기관과 교육발전특구 운영 관리를 위한 '지역 협력체 구성 협약'을 체결했으며 특구 사업 관련 시민 아이디어 공모, 주민 설문조사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특구 사업 발굴에 힘써 왔다. 나주시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인재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나주실현'을 목표로 오는 2028년까지 추진된다. 큰 틀에서 ▲함께하는 품평 교육 ▲글로벌 특화교육 ▲지역자원 연계 맞춤형

교육 ▲산업맞춤 전문·기능인력 양성 등 4대 전략과 17개 세부사업을 구성했다. 특히 혁신도시 공공기관(에너지밸리)이 입지해있는 나주형 특구 모델 강점을 살려 혁신도시 공공기관·지역 대학, 일반고교·특성화고교 등을 연계한 공동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한국전력·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에너지공단 등)과 나주·매성고·봉황고 등 자율형공립고교 고교학점제를 연계해 전력반도체, 정보보안, K-콘텐츠 분야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나주공고·나주상고·전남미용고·호남원예고 등 특성화고교

간 융복합과정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중 나주공고의 경우 협약형 특성화고교로 지정해 에너지밸리 기관·기업과 연계한 기계, 전기·전자 분야 특화교육을 제공한다. 아울러 한국에너지공단, 동신대,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캠퍼스, 폴리텍대학 등 에너지 산업 관련 대학 진학에서부터 취업까지 이어지는 에너지밸리 산학연기반 전문인력 양성 체계도 갖춘다. 특구 주요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돌봄체계 구축 ▲단일학교형 늘봄학교 운영 ▲IB교육과정 ▲디지털 교수·학습지원체계(ALC) 구축 ▲생활권역별 교육자치지구 운영 ▲매성고·봉황고·

나주 등 자율형 공립고 20지정 확대 ▲전남과학고-한국에너지공대 연계 공동교육과정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에너지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정주체계 구축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과정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 등이 있다. 윤병태 시장은 "지속가능한 미래 일자리, 국가 발전에 필요한 핵심 인재를 나주에서 양성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나주형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 교육의 혁신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을 위해 나주를 찾는 명품 교육도시를 조성해가겠다"고 강조했다. /나주=정종환 기자



함평군은 최근 '제26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최를 앞두고 엑스포 공원 내 꽃단지 조성을 위해 비올라 등을 식재했다. <함평군 제공>

함평나비대축제, 봄꽃 준비 '한창'

내달까지 단계별 꽃단지 조성

함평군은 3일 "제26회 함평나비대축

제를 앞두고 축제 분위기 고조 및 아름다운 시기 미관 조성을 위해 엑스포 공원 내 비올라 등을 식재해 화단을 조

성했다"고 밝혔다. 군은 나비대축제 준비를 위해 오는 4월까지 단계별로 꽃단지를 조성해 관광객에게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제26회 함평나비대축제는 '나비찾아 떠나는 함평 여행'을 주제로 내

달 4월26일부터 5월6일까지 11일간 함평엑스포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상의 군수는 "관광객에게 환하고 아름다운 함평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산뜻한 봄소식을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함평=김연수 기자

'생동감 되찾기' 신안, 우울선별 검사 추진

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잠재적 고위험군 상담 제공

신안군은 3일 "군민들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읍·면 방문간호사와 함께 '생동감 되찾기 우울선별검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울선별검사는 관내 주민 누구나 우울, 불안, 자살 사고 등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이 조기에 적절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 예방 사업이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우울 증상을 모르고 방치해 중증 우울증으로 악화하고 있다.

신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최근 방문간호사를 대상으로 검사의 정확성을 위해 우울 선별검사 역량 강화 비대면 교육을 실시했다.

3월부터 매주 1회 지도읍으로 찾아가

는 우울선별검사와 마음건강상담을 진행해 잠재적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전문기관 치료연계,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소 등록 임산부 중 산전·후 우울증이 있는 산모를 대상으로 정기적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안군보건소 관계자는 "지역 주민 누구나, 특히 우선 보호해야 할 어르신과 임산부 등은 고민하지 말고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해 생동감을 되찾아 마음 건강을 챙기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울 검사와 지속 상담이 필요한 경우 신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061-240-5480)로 문의하면 된다.

/신안=양훈 기자



"안전관리 철저...중대재해 Zero실천 결의"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건설현장 무재해 결의대회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3일 "최근 목포 유달산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전남서부지역 건설안전협의회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서부지역 건설현장 무재해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중대재해 Zero' 실천 결의문 낭독을 시작으로 현수막 안전기원 서명 퍼포먼스, 유달산 안전

기원 산행 등을 통해 전남서부지역 건설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했다. 박철준 목포고용노동지청장은 "'산업안전대진단'에 적극 참여해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해 안전 수준을 개선할 것을 독려하는 한편, 건설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가 중심이 돼 지역 내 중대재해 예방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완도 해양치유센터 '힐링 핫플레이스'로 부상

개관 이후 1만7천여명 방문...매주 1천200명 다녀가

완도 해양치유센터가 개관 이후 1만7천여명이 방문하며 치유와 힐링을 위한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3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4일 개관한 완도 해양치유센터에 매주 평균 1천200명이 찾고 있는 가운데 주말에는 예약이 팍 찰 정도다.

해양치유센터는 국내에서 유일한 해양치유 시설로 해수욕, 해조류, 마드 등 완도의 해양자원을 활용한 팔라소플, 명상플, 해조류 거품 테라피, 마드·스톤 테라피 등 16개의 테라피 시설을 갖췄다. <사진>

팔라소플에서 각종 수중 운동과 수압 마사지 등을 하면 피로 회복, 통증 완화, 근육통 해소에 도움이 되며, 명상

플은 긴장 완화와 스트레스·불면증 해소, 마드 테라피는 독소 배출과 피부 개선 등에 도움이 된다.

해양치유의 효능이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 곳곳에서 이용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한편 완도 해양치유센터가 본격 운영되면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관광 활성화에도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전문 인력 23명을 지역 출신으로 채용했고, 해양치유 해설가 20명을 양성해 단체 관광객 방문 시 해양치유를 비롯한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등 지역민과 상생하는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다.

또한 지역 대표 축제인 청산도 슬로 걷기 축제와 장보고 수산물 축제 등이



시작되면 해양치유센터를 찾는 이용객이 더 많아질 것으로 내다보며 군에서는 다양한 이벤트와 할인 행사, 홍보

마케팅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근에는 전남도교육청과 현대삼호중공업, 건강관리협회,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기관과 단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단체 치유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군은 해양치유센터의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3월까지 운영한 후 잠시 휴관을 거쳐 오는 20일 재개관할 예정이다.

신우철 군수는 "완도 해양치유센터를 거점으로 청산 해양치유공원, 약산 해안치유의 숲 등 공공 치유시설을 활성화시키고, 해양치유와 산림치유를 아우르고 섬마다 지닌 치유 자원과 관광 자원을 연계해 완도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치유의 섬'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최고령 95세...늦깎이 학생들 졸업장 받았다

무안군, 초등학교인정 성인문해교실 졸업식

무안군은 3일 "지난달 28일 전남도교육청 무안도서관에서 초등학교인정 성인문해교실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초등학교인정 성인문해교실은 전남교육감이 지정한 3개년 과정으로 수강생들은 지난 2021년 초등 1단계를 시작으로, 2022년 초등 2단계, 2023년 초등 3단계 과정을 수료해 올해 7명의 졸업생

을 배출했다. 이번 졸업생 중 최고령자 김아순(95·여)씨는 늦은 나이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움을 포기하지 않아 3개년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졸업의 기쁨을 누렸다.

김삼 군수는 "경제적 여건 등으로 제때 교육을 받지 못했던 어머니 생각이 난다"며 "초등학교인정 성인문해교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 건강하고 보람찬 여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 성인문해교실 운영

을 늘려 13개 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졸업생 중 일부는 중학교과정 성인문해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무안=김상호 기자

최대 30만원 지역화폐 지급...22일까지 접수

영암군은 4일 "초등학교생에게 지급하던 입학축하금을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달 4일부터 22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신청을 받는다. 입학축하금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역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 영암군 학교에 입학하는 초·중·고등학생 학생 총 987명이 입학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초등학생 10만원, 중학생 20만

원, 고등학생 30만원씩 지역화폐 영암사랑카드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는 입학 당일 입학축하금 센터에서 지급 신청을 받는다. 단, 타 시·군 학교에 입학한 뒤 영암으로 전학을 온 학생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학생 보호자가 신분증을 갖고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방문하면 입학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안내는 영암군 인구청년정책과(061-470-2215)로 문의하면 된다.

/영암=나동호 기자